



# 現代教育과 學校圖書館

## —「教育課程」의 改定과 學校圖書館—

日本全國學校圖書館協會 編  
李 澤 游 譯

〔譯者註〕 이 글은 日本의 全國學校圖書館協會에서 1976年 3月16日, 「教育課程의 改定과 學校圖書館에 對하여」의 要請書를 文部省에 提出한 것을 옮겨 본 것이다.

이 要請書가 마련되기 까지 經路를 보면은 日本의 全國學校圖書館協會는 教育課程이 變하지 않아 改定될 것을 展望하고 現場에서 實際로 學校圖書館을 擔當하고 있는 立場에서의 提言이 必要하다는 同協會의 事務局에서 決定되어, 全國學校圖書館協會 第26回總會에 附議 이의 決議를 보았다는 것이다.

그 決議로 1975年初에 同協會는 特別히 教育課程委員會를 發足하여 原案의 作成에 着手하였다. 이 委員會의 發足과 並行하여 原案에 對한 討議委員會를 널리 公募하였다. 數次에 걸친 改書의 苦心끝에 同年 9月末 原案을 完成하고, 直時 討議委員 및 各縣學校圖書館協會에 送付하여 檢討를 求함과 同時에 「學校圖書館速報版」에 掲載하여 關係要路의 意見을 求하기도 하였다.

또 同委員會에서는 게스트委員으로 大學教授 3名을 指名하여 그 意見도 받았으며, 全國學校圖書館協會에서도 常務理事會 및 事務局會議의 檢討도 받는 등, 可能な 限 衆智를 모았다.

이렇듯 各方面에서의 意見을 基本으로 委員會는 最終의 成案의 作成에 들어가 1976年 1月14日에 最終案을 決定하여 全國學校圖書館協會에 答申되었다는 것이다. 答申을 接受한 同協會는 이것을 事務局會議등에 보내짐과 함께 再次 討議委員에게 送付하여 意見을 求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意見을 綜合調整하고 決定한 것이 「現代教育과 學校圖書館」이다.

### 1. 世界의 教育改革과 學校圖書館

日本의 學校教育은 門地, 階級, 男女의 性別등에 의하여 差別없이 모든 사람에게 널리 教育의 機會를 퍼나가고 있는 點에 있어서는 諸外國에 比하여 큰 자랑이다. 또 就學率이 높음도 눈을 떠 展望할 일이다.

그러나 學校의 教育內容이나 學習指導方法의 內側의 問題에 이어서는 舊態依然함이 많이 있어, 諸外國에 比肩하는데조차 거리낌한 狀況이 적지 않다. 그 中에서도 아이들의 個性과 能力을 最大限으로 살리면서 그 成長을 企圖한다는 教育의 本質의인 觀點에서의 改善은 거의 되어있지 않고 오늘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無理

는 아니다. 教師는 教科書를 金科玉條로 생각하여 黑板과 분필을 唯一한 手段으로 하여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가 教育이라는 指導의 傾向이 如前히 강하게 엮보인다.

學習의 形態에도 學習하면, 그것은 一切의 授業을 가르친다는 程度로 學習의 一般의인 모습으로서 定着하고 있다. 戰後 크게 教育改革을 試圖해 왔음에도 學習指導라는 面에서는 明治 5年의 學制施行 以來 거의 變함이 없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現在 世界의 各國에서는 여러가지 角度에서 教育改革이 行해지고 있다. Open School이 試圖되어 Team teaching이 實踐되고 있음은 이미 珍奇하지 않다. IPI (Individually Prescribed Instruction)가 導入되어 無學年制가 採用되어 綜合制高校 (Comprehensive high school)가 設立되고, 또 大學入試가 全廢되어 大學 相互間의 單位가 認定되는 등 着着 그 改革이 進行되고 있다. 「壁이 없는 學校」(School without walls)나 「教育公園」 「學校園地」(Education Park, School Complex) 등 因襲의인 思考만의 것으로는 想像조차 困難할 程度의 改革의 實行에 옮겨가고 있다.

이러한 教育改革의 根本을 이루는 思想은 兒童·學生을 一括의으로 取扱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아이들을 注視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의 能力을 最大限으로 伸長시켜나가느냐를 眼目에 두고 있다. 뛰어난 能力을 지닌 아이들도 제자리걸음을 하지 않도록 하고,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들도 너무 뒤처지지 않도록 個別的인 教育을 徹底하게 履行하는데 主眼을 두고 있다.

個別化된 學習에 있어서는 自主의이고 自己指示의 (self-directive)인 學習態度가 強調되어 兒童·學生이 自由로이 參與한다든가 作業을 進행해 가기 위한 教材나 資料가 豊富히 學校圖書館에 마련되어 있다. 歐美諸國에서는 學校圖書館(School Library)이란 用語는 어제의 것으로 化하고, 오늘에는 미디어 센터(Media Center)라 일컫는 背景에 立脚하고 있다. 即 미디어 센터의 充實과 效果의인 運營이 이루어져서 비로소 이

러한 教育改革이 實을 거두고 있음에 着眼하여야 한다. 美國에서는 1965年 初等·中等教育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ESEA)을 制定하여 그 타이틀Ⅱ에서 學校圖書館의 充實을 明示하고, 同法 成立 後부터 不過 8年間に 圀어 1,686億圓이라는 巨額의 補助 金을 支出하여 學校圖書館의 強化를 圖謀하고 있다. 다시 個個의 學校圖書館을 援助하기 위한 미디어 센터의 센터(School District Media Center)도 設立되었고 또 市內에서 教師의 自習室(Teaches Study Center, Teacher Assist Center)이 設置되어 教師가 自由로 工夫하듯 配慮하였으며, 더욱 深夜開館까지 하고 있다.

日本의 學校가 마치 上級學校에 入學하기 위하여 準備學校로서의 教育에 狂奮하고 있는 사이에 世界의 教育은 學校圖書館을 中心으로 大變化를 이룩해가고 있다.

우리들은 이러한 世界教育의 動向에 注目하면서 日本의 受験테스트萬能教育에 잠겨있는 限 어쩔수없는 焦燥感은 解消가 되지 않을 것이다. 日本에서도 이러한 海外에 있어서의 實驗成果를 받아들임은 물론이거니와 學校마다의 創造的인 教育改革의 試圖를 實施함은 오늘 날 要求되는 狀況이다. 이 때에 教育課程이 새로 改定되어야 하지만, 아무쪼록 이러한 實驗을 助長할수 있는 方向으로 構想되어지기를 간절히 期待하는 바이다. 가령 「學習指導要領」이 障害가 되어 새로운 教育 實驗을 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 2. 學校教育과 學校圖書館

學校教育의 問題가 國民自身的 問題로서 現代와 같이 強하게 認識되어지고 있는 時代는 없다. 不必要하다고까지 보여지는 羅列的인 知識의 注入과 受験테스트體制下에 있어서 아이들의 自主的 學習意慾의 喪失, 劃一的인 思考傾向은 눈을 가리우는 데가 있다.

이미 就學以前의 段階에서 能力이나 個性의 發達에 差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겠으나, 學校教育이 그 成長을 阻害시키게 된다면 教育은 그 任務를 다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아이들에 대하여 큰 罪를 犯하게 된다고 하여도 우리는 아니다. 그러나 現實은 부른 期待와 기쁨을 안고 入學하는 小學校 一年生은 高學年이 되어 中學校·高等學校로 進學하면서 차츰 意慾을 喪失해가는 事實을 否定하지는 못한다. 특히 中學校·高等學校의 段階가 되면은 高度한 知的 要求나 能力의 發達을 나타내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反面 教科書조차 充分히 읽지 못하는 아이, 學習에 전연 興味를 나타내지 않는 아이가 續出한다. 이것은 教育內容의 精選등 內容의 檢討는 말할 것도 없고 教室에서의 授業의 存在, 그 方法까지를 우리는 再檢討를 바라는 바이다.

그 主要한 原因은 이미 밝힌 現今의 教育制度, 學歷 社會등에 있다고 생각되나 한편 情報 氾濫化時代에 對應하는 適切한 教育의 뒤집이 적으나나 原因이 있지 않았는지, 특히 勞動을 中心으로 하는 生産的인 家庭生活은 急激히 消失되어 閉鎖的이고 注入主義的인 學校 教育이 出現하였다. 그 中에서 成長하는 아이들에게 代價的으로 주어지는 텔레비존·週刊誌를 中心으로 하는 巨大한 매스 커뮤니케이션(mass communication)文化이다. 거기에서 宣傳되는 것은 多分히 享樂的, 官能的, 消費的인 內容이다. 그리고 그 影響力은 學校教育으로서는 도저히 따르지 못하는 面도 적지 않다. 그렇다고 하여 그것을 隔離閉鎖하는 것은 또 不可能하다.

텔레비존의 影響을 많이 받고있는 問題에 受動的, 感覺的, 劃一的인 思考型的 아이들의 出現과 讀書力, 讀書體驗의 後退라는 傾向이 있다. 물론 受動的, 劃一的인 思考는 텔레비존만은 아니고, 定해진 教材의 劃一的인 注入教育도 그 밑바닥 形成에 一役을 叨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이 여기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아니될 일은 매스 커뮤니케이션文化의 退廢라는 問題와 더불어 그것에 對한 批判的인 處理能力의 育成과 積極的인 讀書指導나 映像教育에 對한 個性的인 人間性, 豐富한 感性의 回復에 努力을 以前에 比하여 培增하고 重視하는 指導를 圖謀해야 한다는 것이다. 今後 매스 미디어(mass media)는 더욱 發達할것을 豫想할수 있을 것이다. 人間の 知識習得이나 文化享受의 相當部分이 거기에 委讓되어 간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現在와 같은 學校教育의 狀態로 좋은가라는 疑問과 함께 그 속에서도 讀書가 如前히 自己教育의 方法이며, 특히 靑少年期에 있어서의 人間形成이나 思想, 삶의 發見에 重要한 教育的인 作用을 하게될 것이라는데 着眼하여 그것을 如前히 教育속에서 받아들이고 位置를 불치게 할 것이라는 問題를 이 機會에 眞實한 態度로 再考하여야 되겠다.

本來 教育이란 自己教育能力의 育成을 主眼으로 하는 것이다. 明治의 文明開化, 이를 이어받은 時代에 있어서 知識의 注入이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現在에 이르러서도 더욱 그 延長으로 教育을 머 무르게 한다는것은 時代的 錯誤가 甚하다고 말할수 있을 것이다. 現在야 말로 自主的인 學習能力의 育成을 通하여 創造的인 人間을 形成하는것을 重要한 教育目標로 하여야 될것이다.

여기에 이르러 學校圖書館이 가진 教育的意義와 그 機能의 重要性을 새삼스럽게 잘 認識하여야 하겠다. 그것은 먼저 戰後 民主的인 教育의 出發과 함께 確認된 極히 清新, 동시에 重要한 教育活動이었다. 1948年 7월에 文部省이 發한 「教科書의 發行에 關한 臨時措置

法에 대하여」라는 通達에는 「教科書 中心의 教育에서 兒童·學生 中心의 教育으로」 「教育上의 聖書였던 教科書는 다른 教材와 同列의인 教材라고 생각을 다시 하였다」라는 指導가 보여, 同年 文部省은 「學校圖書館의 指針(手引)」를 發行, 그 속에서 新教育에 있어서의 學校圖書館의 意義와 役割을 強調하여, 學校圖書館은 새로운 教育改革을 達成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것중의 하나이다」라고 述함으로써 그 意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記載하고 있다.

「學生의 個性을 伸長해 가는데 有用——學校에서 學生의 學習과 思想을 一定한 틀에 얽매이게 함은 個性의 發達을 促進시키게 되는 것이 아니라」 「學校圖書館은 自由로운 活動의 手段을 賦與한다」 「學生의 가지고 있는 問題點에 대하여 여러가지 생각하는 方法이나 答을 提供한다. ——가령 敎室의 學習에 있어서 敎師로 부터는 하나의 問題에 대하여 단 하나의 解決만이 주어진다던 學生은 自己自身이 事實을 생각하는 方法을 배우지 못할 것이다.」와

學校圖書館의 教育的 意義의 大部分은 이제 前記의 말에 盡力하고 있다. 學校圖書館은 단지 施設, 設備의 呼稱이 아닌은 물론 附屬의인 教材備置場에 머물러 있지 않다. 고로 獨立法으로서 「學校圖書館」의 制定을 보게 되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 同法에 明示되어 있는 學校圖書館의 目的은 「學校教育에 必要한 資料를 蒐集하여 整理 및 保存하여 이것을 兒童 또는 學生 및 敎員의 利用에 提供함으로써 學校의 教育課程 展開에 寄與함과 동시에 兒童 또는 學生의 健全한 敎養을 育成하는것」(第二條)에 있다고 하여 그 活動으로서는 「讀書會, 研究會, 鑑賞會, 映寫會, 資料展示會등을 行하는 것」 「圖書館資料의 利用 其他 學校圖書館의 利用에 關하여 兒童 또는 學生에 대하여 指導를 行하는것」 「他の 學校의 學校圖書館, 圖書館, 博物館, 公民館과 緊密하게 連結하고 協力하는것」 以上(第四條)등을 들고, 다시 支障이 없는 限 「一般公衆에게 利用케 할수 있다」(第四條)라고 까지 規定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도 學校圖書館이 지닌 教育的 機能은 現在 學校教育中에서 多樣한 教育活動에 對應하는 中心의인 存在일뿐 아니라 社會教育에의 接點으로서도 重視하지 않으면 아니되겠다.

生涯教育이나 週休二日制등의 社會的 要請등의 觀點에 이르르면 차츰 그 重要性은 더하게될 것이다. 바로 여기에 當面한 教育改革의 한 突破口가 있다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學校圖書館法을 制定한 以來 이미 20餘年, 새로운 教育創造의 일은 여러가지 困難을 참아가면서 關係擔當者의 努力에 의하여 實踐해가고있다. 그것은 戰後

教育이 낳은 자랑스러운 重要한 成果라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더욱 그 教育的 意義나 法의 趣旨가 徹底치 못하고 學校圖書館을 單純한 兒童·學生의 餘暇利用이란 施設로만 理解하고 있는 點, 돈이 많이 所要되는 附屬施設이라는데만 생각하는것이 一部일지라도 教育界 속에 조차 있다함은 事實이다. 그 直接的인 要因에는 司書敎師나 學校司書의 配置를 위시하여 經費나 施設의 問題등에 行政上의 措置의 缺落등 해야될 수 없으나, 根本的으로는 「學習指導要領」에서 明示가 적었다는 點에 있으며, 同時에 敎師側에 教科書 中心의 注入式 授業이 克服되지 않은 實情이 있었다는 點에도 큰 原因이었다고 말하지 않을수 없다.

### 3. 「學習指導要領」의 改定과 學校圖書館

이에 反復하여 記述한바와 같이 學校圖書館이 敎師 中心의 授業이나 注入式 中心의 授業에서 兒童·學生 中心의 學習으로 組織을 돌려야할 터전으로서 없어서는 아니될 存在임은 거듭 말할 必要가 없다. 教育과 아이들의 學習要求에 適應하면서 그 豊富한 能力과 個性을 끄집어 내어 育成하는데 있다. 한사람 한사람의 個性을 중히여겨 生生한 授業을 創造해가자면 어떻게 하던은 좋은가——그것은 아이들의 現實에서 出發하여 아이들의 自發性을 尊重하는데서 부터 서둘러야됨은 많은 實踐에서 나타내고있다. 「우리들 중의 教育熱이 강한 사람들은 아이들이 스스로 學習하는것이 더욱 잘 배워진다는 것을 일부러 일러주려고 한다」라는것은 이미 루소(Rousseau, Jean Jacques)가 指擣한 바이다.

지금, 現行의 「學習指導要領」을 보면은 小學校·中學校·高等學校 다 같이 共通인것은 實은 知識項目이 仔細하게 羅列되어 있는데 있다. 配慮事項으로서는 「學生의 興味나 關心을 尊重하여 自主的, 自發的인 學習을 하겠끔 指導할것」 「個個의 學生의 能力, 適性등의 正確한 把握에 努力하여 그 伸長이 助長되도록 指導할것」 「教科書 其他의 教材·敎具를 活用하여 學校圖書館을 計劃的으로 利用할것」 등으로 記載되어 있으나 現場의 學校에서는 방대한 教育內容을 消化하는데 煩雜하여 그 趣旨를 살려갈 時間的餘裕를 얻을수 없음이 實情이다.

또 學校圖書館이 지닌 獨自的인 教育機能으로서 現代에 있어서 着眼하여야 할 하나는 讀書指導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學習指導要領」에서는 問題를 提起조차 하지 않고있다. 불과 小學校 國語科의 「읽을것」의 指導에 關聯하여 「日常 兒童의 讀書活動도 活潑하게 함과 同時에 他敎科에 대한 讀書의 指導나 學校圖書館의 指導와의 關聯도 考慮하여 實施할것」이라고 考慮하고 있음은 前進의이라 評價할 일이지만 우리들이 主張하는

人間形成을 위한 讀書指導와는懸隔한 差異가 있다.

學校圖書館의 利用指導에 대하여도 小學校에서는 學級指導속에서 學校給食, 保健指導, 安全指導등과 같이 行하여지도록 되어있으나, 時間의 確保도 明確하지 않다는 條件下에서는 극히 不充分하다. 中學校·高等學校에 이르러서는 學校圖書館에서 「指導를 行할것」이라고 定해져 있는데도 「學習指導要領」에서는 掲載되어 있지 않다.

그러던 學校圖書館에 있어서의 利用指導의 中心的인 內容은 情報나 知識의 檢索蒐集과 그 處理法에 있다고 하여도 좋다고 생각된다. 이에 관한 知識이나 技術 및 能力은 自立的인 學習에는 必須의 基本的인 것이다. 그러므로 學年이 올라갈수록 相應 그 必要性은 增加하는데, 小學校는 設定되어 있으나 中學校·高等學校로 上級으로 나아감에 따라 指導內容으로서 消失해간다는 데에 理解가 가지않는다. 諸外國에서는 大學에 들어가서도 이 指導는 相應 強化되고있다. 日本의 學習指導가 어떻게 아이들의 自立的인 學習態도의 形成이라는 面에서 偏向되고 있는가를 如實히 나타내고있는 事例라 하여도 좋을것이다.

大體로 「學習指導要領」의 編成이라는것은 教科에 있어서 指導內容의 檢討라는 極히 좁은 視野에서만 實施되어온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오늘은 「教育이란 무엇인가」「學習이란 무엇인가」「人間의 成長이란 무엇인가」라는 教育의 根本을 問題化하고 있는것이다. 直時 이에 答하기는 어려우나 世界의 教育現實을 導入하고, 民族의 將來를 생각하며, 그 나라의 文化狀況을 認識하면서 學校教育이 하여야할 役割에 對하여 하나의 回答을 具體的으로 提示하는 것이 今日的 「學習指導要領」의 改正이 아니면 아니된다고 생각한다.

#### 4. 「中間報告」와 學校圖書館

教育課程의 改正에 대한 그 基本的 方向을 「中間報告」로서 教育課程審議會에서 發表하고있다. 그에 의하면 「人間性이 豊富한 兒童·學生을 育成하는것」「여유가 있는 充實한 學校生活를 보낼수 있도록할것」「國民으로서 共通的으로 必要한 基礎的·基本的인 內容을 重視함과 동시에 兒童·學生의 個性과 能力에 따른 教育이 이루어지게 할것」의 三點을 改善의 方向으로 들고 있다. 이의 實施를 위하여 小學校, 中學校, 高等學校의 各授業時間數에 대한 削減을 計劃하여 學校가 創意를 살리는 教育活動을 實施할수 있는 時間도 어느程度 確保하겠음 하였으며, 特히 高校에는 教科 以外の 教育活動으로서 「自由研究的인 內容등 새로운 內容을 設定하는것에 대하여 檢討한다」라고 하였다. 다시 「學習의 指導法」에 대한 項을 設定하여 「各學校에서는 自發

的·創造的인 活動에 期待하는것이 많다. 特히 今回의 改善에 의하여 實現이 期待되는, 한사람 한사람의 兒童·學生의 個性이나 能力과 適性에 맞는 學習指導를 하기 위하여는 教育的 實際的인 터전에서 指導方向의 向上을 圖謀할 必要가 있다」로 되어있는 點등 過去의 改正에는 보지못한 積極的인 姿勢가 엮보인다. 今後의 具體的 內容의 展開에 대하여 크게 期待하고자 한다.

그러나 「中間報告」는 너무나 大綱만을 나타내고 있기때문에 具體性이 缺하여 眞實한 意味가 不明確한 點이 있다. 即 「學習指導의 方法에 있어서 「各學校에서의 自發的·創造的인 活動에 期待되는바 많다」 特히 「今回의 改善에 의하여 實現을 期待할 수 있는 한사람 한사람의 兒童·學生의 個性이나 能力과 適性에 맞게 指導方法을 圖謀할 必要가 있다」라고 記述하였는바, 이것은 現行의 指導要領에서도 總則에 이미 쓰여져 있는 것으로 새삼스럽게 強調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念慮가 있다. 이 文章에 이어 「이를 위하여 教育的 資質向上은 물론 教材·教具등의 改善, 學習指導의 評價, 研究등이 積極的으로 進行할 必要가 있다」라고 明示하고 있다. 敎員의 質的 向上은 좋다고 하더라도 個性이나 能力에 맞는 指導를 云云하면서 結局은 움직이지 않는 模型을 움직이는 模型같이 說明한다든가 口頭로 說明한 狀況을 슬라이드로 보게 하는것과 같은 教材·教具의 改善과 評價의 觀點이나 方法의 改善을 포함이 即 個性이나 能力에 맞는 指導를 하는 것이라는 安逸한 歸結에는 甚히 遺憾된 일이다. 이러한 消極的인 「改善의 基本方向」에 의한 「兒童·學生의 個性이나 能力에 맞는 教育」의 指導方法으로서의 結論으로는 너무나 皮相的인 內容이다. 이것은 「좀더 研究하여 알기 쉬운 授業을 하라」라고 말한것에 지나지않고, 全體學習이나 注入式學習등 授業의 體質을 根本的으로 改善하려는것이 아니다. 兒童·學生의 個性에 맞는 教育이란, 教育內容의 面에서도 그 目的을 達하도록 配慮하지않으면 아니되지만, 教育方法의 面에서도 그 目的을 達成하겠음 配慮함이 必要하다. 그것은 單純하게 視聽覺資料를 導入한다든가, 電動式的 模型을 利用한다든지 하여 說明을 잘 하는것이 學習의 改善은 아니다. 이것도 包含하여 兒童·學生 스스로가 自發的으로 學習을 하도록 學習指導의 存在를 根本的으로 構築해가는 最大의 力點이 두어져야한다. 이러한 點에 對하여 우리들은 再考를 要望한다.

文部大臣의 諮問事項에 들어있는 「人間形成上에서 學校教育이 社會教育 및 家庭教育과의 사이에서 어떠한 役割을 分擔」하는가, 「週休二日制와의 關聯등」은 「中間報告」에는 明示가 없으며, 今後의 審議에 미루고 있다. 이 點에 대하여 學校圖書館의 立場에서 말한다

면, 學校圖書館은 아뭏든 孤立的인 學校教育속에 들어 있으며, 比較的 社會에 向하여 열려져있는 窓이다. 그것은 前述한 學校圖書館法에 規定된 學校圖書館의 運營內容에서도 이미 明白하다. 昨年에는 「親子讀書」(或은 「親子 20分間讀書」)運動등이 活潑하여 兩親이 學校에 登校하여 아이들과 冊을 읽는 모임에 參加하는 등 多少意欲으로 學校圖書館活動을 展開하고있는 學校에서는 어째서나 볼수있는 狀況이다. 個人에 限定된 經驗에 머무르게하지 않고, 그것을 다른사람에 물려준다는 點에서 重視할 重要한 機能으로서 評價하여야한다. 現在 學校圖書館으로서 館外活動의 一環으로 兒童·學生을 對象으로한 讀書會등이 많은 學校에서 實施되고 있으나 讀書를 媒體로하는 人間相互의 接觸은 教育的으로 極히 貴重하다고 하겠다.

그러면 우리들은 變貌하는 世界의 學校教育에 대한 動向을 바라보면서 學校圖書館이 하여야할 役割을 생각하기로 하였다. 또 「中間報告」의 檢討中에서 學校圖書館의 地位를 생각하였다. 그 結果 다음 諸點에 對하여 發言하는 것이 現場에서 實際로 學校圖書館을 擔當하는 者의 民主的인 責務임을 認識하게 되었다. 새로운 教育의 出發에서 學校圖書館의 重要性을 銘記하고, 다음 各項에 대하여 教育課程에서 充分히 配慮하도록 要望한다.

記

1. 教育課程에 관한 事項

1. 實驗的인 教育改善의 自由로운 試圖

諸外國에서는 現場의 教師는 물론 行政機關이나 研究者가 一體가 되어 學校教育의 改善을 위하여 여러가지 計劃의 實驗을 試圖되고 있다. 이렇게 實驗되고 實證된 結果가 다시 他의 學校에서 追試되고 波及되어 教育改善이 內部에서 成熟해 가는것이 一般的인 傾向이다. 日本에서도 特別한 事由를 가지고 研究하는 學校에서는 「學習指導要領」을 떠나서 研究하듯 配慮할 必要가 있다. 때로는 「學習指導要領」을 否定하여 研究할 理由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의 保證이 必要하다. 물론 通常의 學校는 「學習指導要領」에 準하여 學習指導를 하여야함을 말한나위없다.

이러한 研究가 認定되지않는 限, 日本의 教育改革은 通常 實驗없는 實施가 되어 페이파 프렌에 그치고 말 것이다. 現場에서의 學校立場에서 말한다면 恒常 改革은 밖으로 부터 들어오는것이 된다. 日本의 教育改善에서 致命的인 弱點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率直히 自覺하여야하겠다.

또 이것이 今後 日本教育界에 있어서 크나 큰 變革을 가져와야할 點이라 믿는다. 教師의 教育에 대한 本質的인 興味를 刺戟하게 되기 때문이다. 現場의 實踐

에 의하여 「學習指導要領」이 修正되고, 보다 나은 「學習指導要領」에 의하여 다시 現場이 向上하는 循環의 確立에 이제야 一步를 내어디딜 때이다.

2. 「學習指導要領」에 學習指導方法을 明示

教科의 展開方法 등 細部 學習指導方法에 대하여는 現行的 「學習指導要領」에는 아무런 明示조차 없다. 듣기에는 「教師의 自由로운 創意에 期待하기 때문에 그것을 拘束하는것과 같은 方法까지도 쓰여 있지 않다」라고 하는것이 그 理由라는 것이다.

만약 今回에도 同一한 越旨로 「學習指導要領」에서 學習指導方法을 包含시키지않을 方針이라면, 적어도 「어떠한 事由로 包含시키지 않았다」라고 그 理由의 挿入을 바란다.

日本은 무엇을 가르칠것인가에 대하여는 큰 關心을 갖고 있으나, 무엇 때문에 어떻게 가르칠것인가에 대하여는 잊고 있다. 특히 어떻게 가르칠것인가에 대하여는 단지 方法으로서 取扱되어 왔다. 훌륭한 目的은 훌륭한 方法에 의해서만 達成되는 것이다. 目的과 方法은 不可分이라는 認識의 缺如가 오늘의 問題이다. 그러므로 方法이기 때문에 明示하지 않았다는 舊來의 姿勢를 一轉하여 과감히 「學習의 指導方法」이라는 一章을 設定하여 學習方法에 對應하고 懇切한 留意事項을 明示할 必要가 있는것이 아닐까, 그것이 바로 現在 바로 잡아야할 일이라 우리는 생각한다.

兒童·學生에게 統計書의 檢索도 시키지않고 教師가 一枚의 統計數字를 프린트하여 配付한다면 그것이 資料를 利用하는 學習이라는 安易한 理解에 지나지않음이 적어도 「學習指導要領」에 必要하다. 마치 教師의 自由에 맡겨둔다면 黑板과 分필의 의존에 의한 講義가 許用되는 解釋으로 表現할수 있는 「學習指導要領」의 趣旨가 아님을 明確하게 하여야한다.

3. 每日 1時間 以上の 自習時間(Study Hall)을 設定

스스로 自習을 計劃하여, 스스로 배운다는 學習指導를 展開하려면 必然的으로 兒童·學生은 課題로서 삼아야할 것이다. 이 課題를 다음의 授業時間까지 解決하지않으면 안된다는 必要에 쫓기게 된다. 兒童·學生은 그 發達の 段階에 따라 研究한다든가 調査한다든가의 活動을 開展하지않으면 아니될 것이다.

그 解決에는 時間과 場所 그리고 사람이 必要하게 된다. 或은 自宅에 가져가서 課外時間에 解決을 하려고 하지않을수도 없다. 現場에서 教師의 學習指導에 대한 研究不足도 있거니와 이것으로는 아이들에게 더욱 負擔이 加重하게 된다. 이러한 事由로서 自主的인 學習을 展開하고자 하여도 되지않는 理由가 發生한다. 先進諸國의 學校에서는 自習時間은 1日 1時間以上 반

드시 設定하고있다. 우리들의 教育이 注入式 中心型이 기 때문에 自習時間의 設定이 없더라도 아무런 이상스러움이 없이 지나치고 있다. 自主의인 學習을 展開하려면 自主의으로 공부할수 있는 時間을 아이들에게 保證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이것이 바로 自習時間이다. 이 時間은 特定教科의 時間이 아니고 同時에 모든 教科의 時間이라 하겠다. 이 時間에는 어느 教科의 공부 또는 自由讀書를 하여도 무방한 時間이 된다.

이어서 그 場所에 대하여는 自習室을 設備하여도 좋겠으나 自己의 教室에서도 充分히 自習할 수 있다. 資料를 必要로 하는 者는 許可를 얻어 學校圖書館에서 지내도 좋다고 생각한다. 多幸히 關係者의 不斷한 努力으로 學校圖書館의 質的인 充實은 相當하여 이 要求에 充分하기에는 어렵겠으나 그런대로 相當한 量은 提供할 수 있다.

指導에 임하는 教師에 대하여는 擔任教師인 경우도 있으며, 全校의 教師를 自習時間의 擔當으로 하여도 될것이다.

적어도 小學校 高學年 以上을 對象으로 하여, 中學校 高等學校에 이르도록 每日 1時間以上은 自習時間을 設定할 일이다. 말할것도 없이 이 自習時間은 現在의 授業時間에 다시 每日 1時限(合計 週6時限) 增加하여 設定하는것이 아니고 이것만큼 授業時間數에서 削減하여 設定할 일이다.

## II. 學校圖書館에 直接 關係되는 事項

### 1. 學校圖書館의 教育的 意義나 機能을 「學習指導 要領」에 明示

學校圖書館의 教育的 意義, 機能을 위시한 人間形成에 있어서 讀書가 갖는 意味등을 充分히 認識시킨 然後에 教師는 學習指導에 있어서 學校圖書館을 利用시키는것이 重要하다. 또 學校圖書館이 學習指導에 그치지않고 生活指導, 家庭教育, 地域의 文化活動과의 連繫까지 廣範한 教育機能을 가지고 있음을 理解시킬 일이다.

이 認識을 시키자면 現行 「學習指導要領」의 總則에 있는 事項中 「學校圖書館」이라는 1項을 挿入하여 모든 領域에 걸쳐 指導와 學校圖書館과의 關聯이나 學校圖書館의 役割을 明示하는 것이 重要하다.

2. 各教科의 「內容取扱」을 表示한 項目속에 學校圖書館의 利用과 利用指導에 관한 事項을 添加 各教科의 授業을 展開함에 있어서 學校圖書館을 利用하여 自主의인 學習을 하겠끔하고, 資料나 圖書館利用의 方法을 아이들에게 指導하는것을 「學習指導要領」에 넣어야 되겠다.

스스로의 問題를 解決하는데 必要로하는 情報나 知

識을 如何히 檢索하고 蒐集하며, 그리고 그 價値判斷을 행하여, 自身의 目的에 맞겠끔 處理하는가라는것은 學習의 第一步이다. 그 過程보다도 結果로서의 知識을 傳授하는것이 先決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먼저 記述한 바와 같이 指導의 過程이 反復함으로서 自覺의인 學習態度가 처음으로 形成되어가는 것이다. 資料로 檢索하지 못하고, 所謂 結論으로서의 知識만을 가지고 教授한다는것은 主體의인 自己形成者로서 兒童·學生을 길러가는 授業態度가 아닐뿐 아니라 極히 不親切한 指導라 하겠다. 教科의 學習展開에서는 이 點에 대하여 充分히 指導하여야한다는것에는 各教科마다에 明確하게 해두는것이 學習을 틀림없게 하는데 重要하다.

### 2. 「圖書館의 時間」을 每週 1時間 設定

現代만큼 人間形成이 어려운 時代는 없다고 일컬고 있다. 人間이 經濟成長에 奉仕하고, 教育이 그 發展에 從屬한다고 하는 近代化時代의 總括狀況下에서 오늘의 學校教育이 國民에게 어떠한것을 提示할것인가는, 人間の 存在에 立脚한 根源的 教育은 무엇이며, 어떠한 必要가 있고, 무엇을 배울것인가이다. 몇번의 改正歷史중의 이번 「學習指導要領」의 改正이 가장 困難한것은 이 國民에게 提示할 事項에 대한 答이라고 생각한다.

人生을 思考, 社會를 생각, 歷史를 理解하여 未來를 豫測해보는 全人的인 思索에 있어서 讀書가 다른 미디어로서는 代身할수없는 特性이 있음은 이미 實證된 때로이다. 우리들은 이 機會에 이 讀書를 學校教育속에 집어넣어가는것이 具體的인 하나의 回答이 된다고 생각한다. 讀書를 보다 可能하게 하자면 綜合的인 能力이 要求된다. 이것은 곧 教科分斷의 縱的인 知識의 傳授에 그치지 쉬운 學習을 옆으로 綜合的인 理解力에 可變하는 要素도 包含된다. 從來의 縱的인 缺陷을 補完하는 機能도 添加하는것이 큰 利點이다.

이 讀書가 지닌 本質的인 特性을 教育에 利用한다는것은 오늘날 가장 渴望하고있는 人間性的인 回復 그 自體를 具體的으로 實現하는것이라 하여도 우리는 아니다.

多幸히도 이 「圖書館의 時間」(或은 「讀書의 時間」)은 現在 小學校에서는 大部分이라 하여도 좋을만큼 많은 學校에서 이미 實施되고 있다. 이것을 中學校, 高等學校로 延長해가는것을 第一로 提案하는 바이다.

第二는 이것을 獨立한 科目으로 할것을 提案한다. 現行的 「學習指導要領」의 改定前에는 이 時間을 中立(neutral)으로 해둘수가 있다. 國語科이면 學級指導가 어딘가에 그 位置를 定해두어야한다. 그러나 어디에 位置를 定해준다하더라도 그것은 假位置에 지나지 않는다. 教科에는 教科의 目的이 있으므로, 即 그곳에

서 讀書를 하여도 敎科의 目的에서 逸脫하는 取扱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역시 어느 敎科에 屬한다는것이 아니고 獨立한 時間으로서 設定하는것이 重要하다.

第三은 이 「圖書館의 時間」에는 「讀書」뿐 아니라 圖書館의 利用指導도 包含하여 指導內容으로 하는것이 合理的이다. 「圖書館의 利用指導」는 敎科의 學習에 있어서도 當然 指導하지만, 特殊한 指導內容도 있어 利用指導의 全領域을 敎科指導의 時間에 配分하여 實施하는것은 不可能하다. 또 現行의 「學習指導要領」에서는 各敎科에서 實施한다고 하더라도 時間이 없으며, 指導가 困難하다는 問題가 있다. 「圖書館의 時間」은 이 實狀을 勘案하여 「利用指導」를 包含하여 그 內容으로 하는것이 適切하다.

第四에 이 「圖書館의 時間」은 現行의 總時間數에 加하여 設定할 必要는 없다. 그렇지 않으면 過密한 授業 時間數는 점점 負擔이 커져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우리들은, 이 時間은 모든 敎科를 綜合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만큼 敎科의 時間을 削減하여야 한다.

또 이 時間의 指導에 있어서는 國語科의 敎師나 社會科의 敎師가 擔當한다는것은 좋은 方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性格과 意義에서 圖書館을 敎師中心으로 全職員의 實施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은 學級擔當의 敎師가 恒時 自己의 學級指導에 臨하는것과 같이 固定的으로 생각할 必要는 없다.

## 會費再調整(引上)에 관한 案內

會員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協助과 聲援에 대하여 深甚한 感謝를 드립니다.

協會는 會員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後援과 積極的인 參與로써 꾸준히 發展되어 오고 있습니다만 自立財政의 確保라는 基本的인 問題가 아직껏 解決되지 않은 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따라서 보다 能動的이고 활발한 事業의 展開와 會員을 위한 權益擁護의 土境을 積極 마련치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實情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協會의 어려움에 대하여서는 너나 할것 없이 會員 모두가 몹시 걱정해 오고 있으며 그 打開策에 대하여 論議되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根本政策을 마련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問題와 關聯하여 現在 協會의 唯一한 財源으로 되어 있는 會員負擔金인 會費를 引上하는 問題가 77年定期編會席上에서 具體的으로 舉論되어 78年度부터 引上키로 決議되었습니다.

協會가 제 機能을 發揮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于先 最少의 財政自立만이 라도 確保되어야 하겠습니까. 團體會員이나 個人會員 여러분들께서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不可避한 會費引上 措置를 깊이 理解하시어 積極적인 協助과 後援을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會費案內 (78年度부터 施行)

團體會費 : A	급	年	70,000원
B	급		50,000원
C	급		35,000원
D	급		10,000원
E	급		5,000원

個人會費 : 年 2,000원